인접 지역 토지 가격 불균형 해소 나서

전주시, 개별공시지가 가격균형 연석회의 가져… 행정구역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가격 형성 문제 검토

전주시가 인접한 토지임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공시지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접 시군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17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완산구와 덕진구, 완주군, 김제시 등 도내 시군 공시지가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접지역 간 개별공시지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가격균형 연석회의'를 가졌다.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이 각각의 시·군·구별로 이뤄지면서 인접 필지에서조차 행정구역에 따라 가격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연석회의는 이러한 불합리한 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전에 인접 시군구 간의 협의를 통해 지가의 균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시는 17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도내 시군 공시지가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접지역 간 개별공시지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가격균형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주요 협의내용은 △행정구역 경계지역 인접 토지 산정지가 비교 및 일단지 여부 검토 △인접 지역 간 불균형 지가 토지 조서 작성 △표준지 선정 변경 및 종합적 검토 등이다.

특히 완산·덕진구의 경우, 행정구역 경계지역 토지 중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하지만 지가 차이가 큰 토지를 대상으로 표준지를 재검토했다.

시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적정가격 협의 후 지가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이번 가격균형 연석회의에 이어 감정평가사 검증과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3월 21일~4월 9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정용욱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경계가 인접 토지임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공시지가가 다른 가격으로 형성돼 시민들의 불만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가격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미라클에이지아이(대표 강현신)는 17일 전주시를 찾아 로봇재활이 필요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비 1200만 원을 후원했다.

장애아동 로봇재활 치료비 기부

미라클에이지아이, 보행기능 향상 위해 1200만원 후원

㈜미라클에이지아이(대표 강현신)는 17일 전주시를 찾아 로봇재활이 필요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비 1200만 원을 후원했다.

이번 기부는 보행에 심한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보행기능 향상을 위해 보행보조로봇을 통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부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지역본부를 통해 로봇재활이 필요한 장애아동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강현신 ㈜미라클에이지아이 대표는 "재활치료는 장애아동들의 성장과 자립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기부가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신체적·정서적으로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부모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장애아동들에게 적절한 재활치료가 제공되는 것은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 적응력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미라클에이지아이의 따뜻한 나눔이 장애아동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건강한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소방공무원 심리적 안정 지원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17일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2025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고품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연찬과 정보 교환의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박덕규 소방서장 외 소방서 주요 관계자들과 윤명숙 심리지원단장 및 수석 상담사가 참여해 전문성을 더한 심리 지원 체계 및 효과적인 사업 운영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역할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방안 설명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협조 사항 전달 △마음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 △전문 상담사와의 정보 교환 및 향후 계획 논의 등이다.

심리지원단장은 간담회에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확대와 전문 분야 상담사의 활용을 통한 다각적인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덕규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들은 재난 현장에서 심리적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신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통해 심리적 회복력을 높이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완산소방서는 17일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2025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17일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공간인 완산벙커더스페이스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각종 현황과 향후 운영 방안 등을 청취했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 완산벙커더스페이스 현장 점검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전윤미)가 17일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공간인 완산벙커더스페이스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각종 현황과 향후 운영 방안 등을 청취했다.

이 시설은 지난 1973년 조성한 땅굴형 방공호로 보존과 관광 목적 등의 활용을 위해 지난 4일 미디어아트 전시관 형태로 재탄생했다.

전 위원장은 "지역 문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공간을 활용한 문화관광자원 육성으로 전주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아중도서관, 그린리모델링 공사 위해 3~8월 휴관

전주시 아중도서관이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통한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잠시 문을 닫는다.

전주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아중도서관이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휴관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아중도서관의 에너지 성능 및 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건축물 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휴관 기간 내·외부 모든 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상호대차 서비스와 모든 도서 대출 서비스 운영도 중단된다.

또한 기존에 아중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건물 정문 도서 반납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다른 시립도서관에서 반납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을 위해 더욱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만들고,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신속하게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 나은 도서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 말씀대성회' 성료

지난 15일 덕진구 팔복동에 위치한 전주교회에서 '전주 2025 말씀대성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도마지파(지파장 최중일)에서 목회자, 신앙인, 언론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간증에 나선 목회자는 "신앙의 목적인 천국 가는 길에 대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성경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는지 알려주고 있으니 반드시 알아가면 좋겠다"며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인이라면 요한계시록에 언제,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오는지가 기록돼 있으니, 말씀을 듣고 맞으면 믿고 맞지 않으면 돌아가도 된다"면서 말씀을 들어보고 확인해 보길 권했다.

최중일 지파장은 요한계시록 전장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현장에 참석한 언론인과 목회자들에게 이날 들은 내용에 대해 가감 없이 그대로 사람들과 소속 성도들에게 알려주길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